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정진석**

<차 례>

- I. 신빙성 평가의 위상과 과제
- II. 소설 이해로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
- III. 소설 이해로서 신빙성 평가의 과정
- IV. 소설 이해 교육에서 신빙성 평가의 가치
- V. 맺음말

I. 신빙성 평가의 위상과 과제

이 연구의 목표는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이하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 또는 신빙성 평가)가 지닌 구조와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신빙성 평가의 교육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방면의 이론적 성과를 검토한 후, 서술자의 가치와 신빙성이 논란이 된 소설 텍스트 및 이에 대한 해석 텍스트들을 분석하여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신빙성 평가의 연구 지평을 심화하고 교육적 가치를 확장하고자 한다.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웨인 부스(Booth, 1961 : 217-218)이다.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그의 구도는 서술자와 내포 작가라

* 이 논문은 2011년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koredu4kid@gmail.com)

는 축으로 이루어진다. 즉, 서술자가 ‘내포 작가의 규범을 대변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 신빙성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빙성이 없다.’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와 그 효과는 내포 작가와 서술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실제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라고 주장하면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가 지닌 위상을 공고히 한다. 서술자의 신빙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소설 텍스트의 전체 효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후 서술자의 신빙성은 서사 연구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 문제가 독자의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 소설을 비롯한 서사에서 서술자는 이야기를 중개하는 담론의 핵심 장치(Stanzel, 1982 : 18)이다. 독자는 소설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 서술자의 중개를 피할 수 없으며 이야기의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서술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의 해석은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신빙성 있는 서술자의 경우 독자는 그의 보고, 해석, 평가에 기대어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간에 감춰진, 서술자 뒤편의 또 다른 의미 작용을 전경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는 독자의 관심을 스토리 층위에서 담론 층위로 확장시키고 이를 주제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요구(Abbott, 2008 : 150-151)한다.

한편 국어교육계에서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시점을 가르치기 위한 제재의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4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국어에 처음 제시한 이래, 시점은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문학 영역의 중요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²⁾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점을 가르치기 위해 주로 신빙

1) 뉐닝(Nünning, 2005a : 90)은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가 현대 서사 이론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한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흥미로운 이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서술자의 신빙성이 기술과 해석, 미학과 윤리학의 접점에 놓이면서 이에 대한 결정이 해석적 담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셋째, 신빙성 없는 서술자가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면서 과거의 정의를 일신할 필요가 제기되며, 넷째, 허구 서사뿐만 아니라 장르,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서사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

2) 4차 이후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점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없는 서술자가 등장하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텍스트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이다. 이 텍스트는 4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에 처음 실린 이래로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까지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다.³⁾ 이는 이 텍스트의 서술자인 ‘여섯 살 난 처녀애’ ‘옥희’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사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 텍스트에 딸린 학습 활동은 대부분 이 텍스트의 서술자가 누구며 어떤 특성을 지니며 왜 이러한 서술자를 설정했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제한된 지식’을 지닌 신빙성 없는 서술자 ‘옥희’의 서술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관점과 위치에서 서술하는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서술자의 신빙성은 소설 이해 및 시점 학습과 맞물려 연구와 교육의 중요 과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작품 분류,⁴⁾ 작가 의식,⁵⁾ 소설사⁶⁾ 등 주로 생산의 맥락에 편

차수	학년	영역	내용
4차	3	문학	(5) 소설이나 누구의 눈을 통하여 진술되고 있는지 안다.
5차	3	문학	마) 소설을 읽고, 시점에 따른 각 작품의 구성 효과를 살피기
6차	3	문학	4) 소설 속의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등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말하여 보고, 작품의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7차	2	문학	(3)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07 개정	2	문학	(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한다.

한편 자료의 범위를 넓히면 교육 현장에서 시점이나 서술자를 가르친 시기를 2차 교육과정기로 올려 잡을 수 있다. 이 시기 입시용 참고서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동환(2009), “소설교육에서의 ‘시점’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제30권, 한국문학교육학회.

- 3) 4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어 3-1’의 ‘5. 소설’ 중 단원의 마무리를 위한 제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어3-1’의 ‘5. 소설의 시점’ 중 본문 제제, 6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어3-1’의 ‘4. 소설의 시점’ 중 본문 제제, 7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어2-1’의 ‘작품 속의 말하는이’ 중 본문 제제로 실렸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로 15종이 발행되었는데, 이 작품은 이중 12종(교회사, 금성, 대교(박), 대교(왕), 미래엔컬쳐(윤), 미래엔컬쳐(이), 비상, 새롬, 신사고, 지학사(방), 지학사(이), 창비)에 실려 있다.
- 4) 이수정(1996), “‘믿을 수 없는’ 일인칭 서술”, 김중구 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 5) 조희경(2006), “서술자의 ‘신빙성’을 통해 본 김원일의 작가의식”, 『우리어문학연구』 제20집, 우리문학연구회.

중되면서 독자 수용이나 소설 이해의 측면과 관련된 연구 성과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즉 독자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가 읽기 이전 단계에서 자명하게 주어진다기보다는 독자가 텍스트의 잠재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중층적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면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빙성 평가의 구도를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야코비(Yacobi, 1981 : 113)는 서술자의 신빙성이 ‘서사와 문학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에 대한 기술은 ‘불분명’하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불분명함은 내포 작가에 대한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 부스의 구도에서 내포 작가는 신빙성 평가의 전제이자 기준이다. 그런데 이 개념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내포 작가가 불필요하며 제거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은 이를 근거로 서술자의 신빙성 구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실제 몇몇 논자는 내포 작가라는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를 정교하게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빙성 평가의 과정, 즉 독자가 서술자의 신빙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수 있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웨인 부스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내포 작가를 내세운다. 문제는 부스가 지적하고 채트먼(Chatman, 1990 : 120), 애벗(Abbot, 2008 : 167) 등이 강조했듯이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내포 작가는 추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즉, 소설 이해에서 내포 작가는 처음부터 자명한 것이 아니라 독

6) 최병우(2003),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7) 최인자(2011),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제25집, 한국독서학회.

자가 텍스트에 근거하여 추론하고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모두 읽고 난 후 내포 작가에 대한 어떤 상을 그릴 수 있고 자신의 해석 경험을 반추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설 이해에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는 간단하지 않다.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포 작가지만, 내포 작가는 서술자를 포함한 텍스트 요소를 근거로 독자가 추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으로, 독자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는 개별 독자가 내린 신빙성 평가가 어떻게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포함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를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 구도와 과정,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 특히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작가가 가치를 설득하고 미적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수사적 전략이면서 동시에 독자가 중층적으로 소통하면서 내포 작가의 가치를 추론하고 탐구해야 하는 해석 과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가 지닌 소설 이해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II. 소설 이해로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

이 장에서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빙성 평가의 구도를 밝히고자 한다.

웨인 부스의 제안 이래, 서술자의 신빙성은 소설 이해의 필수 범주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신빙성 평가의 구도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이견을 보인다. 한편으로 채트먼(1990), 올슨(Olson, 2003), 펠란(Phelan, 2005a) 등 부스의 수사적 전통을 따르는 논자들은 그의 구도를 따라 내포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에 의거하여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코비(1981), 뉘닝(Nünning, 1997), 제아벡(Zerweck, 2001) 등의 서사학자

들은 부스의 구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를 신빙성 평가의 근거로 제시한다.

후자의 출현은 내포 작가를 둘러싼 논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수사적 접근에 따르면, 내포 작가는 서사적 소통의 참여자이자 신빙성 평가의 전제며 기준이다. 그런데 부스의 구도를 대체하려는 후자의 논자들은 내포 작가라는 개념의 실체와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내포 작가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하며 따라서 서사 이론이나 서사 소통의 구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포 작가라는 개념은 더 이상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신빙성 평가의 다른 구도가 필요하다. 이들은 내포 작가에 기대치 않으면서도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리건(Riggan)과 리먼-케넌(Rimmon-Kenan)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리건(1981 : 36)은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도덕과 상식, 인간의 품위에 대한 그의 철학을 수용할 수 없는 서술자'로 정의하면서 여기에 속하는 작중 인물로 광인(狂人), 순진한 자, 위선자, 성도착자,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 악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광대 등을 꼽는다. 리먼-케넌(1983 : 177-178)의 견해도 이와 유사한데, 그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독자가 스토리 제시나 논평에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서술자로 정의한 후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로 서술자의 자질인 ‘제한된 지식, 개인적인 연루 관계, 의심스러운 가치 기준’을 제시한다.⁹⁾ 서술자가 이러한 자질을 지니고

8) 펠란은 내포 작가에 대한 서사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내포 작가에 대한 비판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개념이 불분명하다, 둘째, 텍스트와 동일시하면서 서사의 소통 모델의 주체로 상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셋째, 내포 작가에 대한 기술은 실상 실제 작가에 대한 기술과 다르지 않다, 넷째, 내포 작가가 객관적이고 선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Phelan, James(2005a), *Living to Tell about It :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Ithaca ;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pp.40-49

9) 리먼-케넌의 논의는 이수정(1996)에 의해 적용된 바 있는데, 그녀는 ‘신빙성 없는 서술’을 “서술자의 스토리 제시와 논평에 대해 독자가 의혹을 가지게 되는 서술”로 규정 한 후 ‘제한된 지식’, ‘개인적 연루’, ‘문제제 있는 가치 규범’에 ‘특이한 정신의 소유’를 더하여 1930년대의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분류하였다. 이수정(1996), 앞의 글, p.176.

있다면 그 서술자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이며 이러한 자질이 없을 경우 신빙성 있는 서술자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서술자의 신빙성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인식하지만(“그의 철학을 수용할 수 없는”, “독자가 ~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신빙성 평가의 근거는 철저하게 텍스트 요소인 서술자의 자질로 한정한다.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코비(1981), 뉘닝(1997, 2005a, 2005b), 제아백(2001)과 같은 구성주의 서사학자들은 서술자의 자질이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서술자의 신빙성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신빙성 평가를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 본다. 즉 신빙성 평가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하나의 통합적 해석 장치로서 설계함으로써 애매모호함과 텍스트적 비밀관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독자에 의한 형상화”(Nünning, 2005a : 95)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빙성 평가에 있어 독자의 선지식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독자가 지닌 세계 지식과 규범성에 대한 기준”(Nünning, 1997 : 96)이 텍스트의 신호와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합의된 도덕적·윤리적 규범 또는 특정 문화가 정상적인 심리적 행동을 구성하도록 유지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서술자”(Nünning, 2005b : 496)이다.¹⁰⁾

10)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는 최병우(2003 : 109-110)와 최인자(2011)이다. 최병우는 채트먼, 리먼-케넌 등의 신빙성 논의를 검토한 후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을 ‘독자의 기대 지평과 서술자의 서술 간의 충돌’로 규정한다. 그는 신빙성 평가에 독자의 선지식이 개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소설 이해로서 신빙성 평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반면, 최인자는 야코비, 뉘닝, 제아백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서술자의 신빙성을 “내포 작가의 수사적 전략이나 장치가 아니라 독자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담론이 텍스트의 세계와 교섭하면서 만들어진 가치 판단의 결과”로 규정한다. 특히 신빙성 평가를 독자의 윤리적 반응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평가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서사윤리의 측면까지 확장하였다. 이 연구는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를 중시한 이들 논의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신빙성 평가는 독자가 내포 저자의 가치를 추론하고 거리를 재구하는 과정과 신빙성 평가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넘어 타당성 확보의 필연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들 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

이와 같은 구도는 서술자의 자질만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 신빙성 평가의 더 많은 부분을 해명한다. 첫째, 신빙성 평가가 독자의 능동적인 추론 행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리건이 언급한 ‘도덕과 상식, 인간의 품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서술자의 철학’이나 리먼-케넌이 꼽은 ‘의심스러운 가치 기준’은 텍스트에 내재되어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의 맥락에서는 기실 어떤 종류의 더 큰 틀 내에서 성찰되어야 할 것들이다. 독자는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자신의 선지식, 예를 들어 상식에 대한 관념, 문화적으로 동의한 윤리적 규범, 정상적 심리적 행동을 판별하는 기준 등에 기대 서술자의 자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서술자의 자질 평가는 독자가 텍스트의 불확정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시발점이 된다.

둘째, 신빙성 평가의 다양성과 역사적 가변성을 설명할 수 있다.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가 항상 자명한 것은 아니다.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이 애매한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서술자에 대한 거리가 독자마다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자명하게 여겨지던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신빙성 평가의 근거를 텍스트 요소로서의 서술자의 자질에 한정할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없거나 신빙성을 판단하기 아주 불가능한 난제로 인식된다. 하지만 독자의 선지식을 신빙성 평가의 한 요소로 포함할 경우, 신빙성 평가의 다양성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며 의미 있는 읽기 현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특정 서술자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텍스트와 개인, 텍스트와 특정 공동체 간 상호 작용이 단일하지 않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개별 독자, 또는 그가 속한 해석 공동체의 가치 체계나 사회·문화적 규범을 이해하는 중요한 표지(Zerweck, 2001 : 157~159)로 수용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웨인 부스가 제안한 구도의 한 축인 내포 작가에 기대지 않으면서 신빙성 평가의 새로운 구도를 수립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접근은 독자에게 신빙성 판단이 지닌 추론적 성격, 다양성과 역사적 가변성 등을 밝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문제는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즉 독자의 선지식과 서술자의 자질 간

의 차이나 충돌만으로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구도를 따를 경우 신빙성 없는 서술자와 신뢰할 수 없는 서사를 구분하기 어렵다. 즉, 서술자의 자질과 유형, 또는 ‘독자의 가치관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충돌은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을 의심할만한 중요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필요충분의 요건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서술자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그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서 또는 독자가 서술자의 가치가 의심스럽고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만약 서술자의 가치관이 해당 텍스트의 가치 체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는 신빙성 있는 서술자이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그대로 독자와 텍스트의 거리가 되며 이때 텍스트는 독자가 우려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작품일 뿐이다.

이는 독자가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포 작가의 존재를 상정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¹¹⁾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는 독자가 믿을 수 없거나 또는 독자의 지평과 충돌하는 등 독자와 서술자 간 거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내포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를 전제하는 미적 기법이자 서사 전략이기 때문이다. 펠란(2005 : 48)의 지적처럼, “텍스트의 모순을 신빙성 없음의 한 표지로 읽으려는 해석의

11) 내포 작가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를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내포 작가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이다. 이밖에 다양한 각도에서 내포 작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논의되고 있다.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내포 작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작가를 잘 알지 못할 때도 독자가 서사 텍스트를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독자가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를 일관된 가치를 지닌 어떤 주체의 발화로 수렴하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론한 가치와 의미가 다른 독자의 그것 또는 실제 작자의 의도 및 심리와 일치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여 제작한 서사 텍스트(공동 집필한 소설, 연출,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실제 인간이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등)를 독자가 단일한 저자의 설계로 읽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내포 작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Phelan, James(2005a), 앞의 책, pp.40-49, Chatman, Seymour Benjamin(1990),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강덕화 옮김(2001),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pp.115-138. Abbott, H. Porter(2008),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옮김(2010),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pp.165-169.

움직임은 ‘어떤 사람’이 모순을 신빙성 없음의 한 표지로 설계했다는 추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¹²⁾ 소설 텍스트를 읽은 독자는 서사적 독자(narrative audience)로서 서술자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 독자(authorial audience)로서 내포 작가와도 소통하고자 한다.¹³⁾ 특히 서술자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경우 이러한 중층적 소통은 해석 과정에서 전경화된다. 독자가 서술자에 의혹을 가지게 되거나 그의 참조 틀이 서술자의 서술과 충돌할 때 그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내포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빙성 평가는 중층적 소통의 구도를 지닌다. 서술자의 스토리 제시나 논평에 대한 독자의 의혹 또는 서술자의 서술과 독자의 지평 사이의 충돌은 독자가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하지만

12) 뉘닝은 최근의 논문에서 켈란의 이와 같은 지적을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있다. “인칭화된/인격화된 서술자의 고의가 아닌 자기부죄(自己負罪, self-incrimination)는 비신빙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Zerweck의 논문(2001 : 156)은 그래서 서술자의 고의가 아닌 자기부죄는 결국 어떤 종류의 더 높은 수준의 작가적 대리인에 의한 인도적인 행위를 상정한다는 통찰력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Ansgar F. Nünning(2005a), *Reconceptualizing Unreliable Narration : Synthesizing Cognitive and Rhetorical Approached*, James Phelan & Peter J. Rabinowitz.(ed),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Malden, MA : Blackwell Pub, p.100.

13) 서사적 독자(narrative audience)와 권위적 독자(authorial audience)는 라비노비츠(Rabinowitz)의 개념이다. 그는 실제 독자가 독서 전반에서 보이는 정체성을 구분하는 자리에서 서사적 독자와 권위적 독자를 구분한다. 서사적 독자는 서사의 ‘무엇’에 관심 있는 독자로 서사적 세계 내에서 서술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이다. 우리가 작중 인물이 마치 실제 인간인 것처럼 반응할 때 이러한 독자가 된다. 반면 실제 독자가 서사의 ‘어떻게’에 관심을 가질 때 권위적 독자가 되는데, 권위적 독자는 내포 작가의 가치와 설득 전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eter J. Rabinowitz & Michael W. Smith(1998), *Authorizing Reader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pp.1-28. 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Phelan, James(2007), *Rhetoric/Ethics*, Herman, David.(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10.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서술자의 신빙성, 특히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미적 기법이자 서사 전략이기 때문에 독자는 이를 설계한 ‘어떤 사람’, 즉 내포 작가를 상징하고 그의 가치와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독자는 서사적 독자로서 서술자와 소통하는 동시에 권위적 독자로서 내포 작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다.¹⁴⁾

둘째, 신빙성 평가는 독자의 해석 행위로서 일련의 추론 과정을 거친다. 뉘닝을 비롯한 구성주의 서사학자들의 접근 방식은 신빙성 평가가 지닌 추론적 성격을 부각하고 이와 관련된 해석 현상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서술자와 내포 작가의 거리에 국한하여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려고 한 부스의 구도를 보완한다. 부스의 지적처럼,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를 내포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를 가늠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빙성 평가의 도착점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신빙성 평가는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즉 독자가 서술자와의 거리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토대로 그의 자질을 파악하고 자신의 선지식에 비춰 서술자를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지평과 서술자의 지평이 충돌하면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의혹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이전 서술을 다시 검토하면서 서술자의 뒤에서 서술자와는 다른 가치를 소통하고자 하는 내포 작가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처럼 독자는 자신의 선지식을 적극적으로 투영하면서 서술자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내포 작가의 가치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신빙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4) 이렇게 볼 때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소통의 두 축은 실제 독자와 내포 작가이다. 채트먼(1978/2003 : 168)의 소통 구도에 따르면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가 짝을 이루지만 이는 읽거나 쓰기라는 행위 이전에 상정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일 뿐이다. 실제의 소설 창작과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이러한 구도는 재구조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리피르는 채트먼 식 대칭성의 성립이 속임수에 불과하며 해석의 국면에서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참여하는 축은 실제 독자와 내포 작가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음을 참고. Ricoeur, Paul(1985), *Temps et Récit III : Le Temps Raconté*, 김한식 옮김(2004), 『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성사, p.332-333.

셋째, 신빙성 평가는 해석 공동체의 의미 교섭을 지향한다. 신빙성 평가를 독자 개인의 추론 행위로 간주할 경우, 개별 독자가 내린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해 독자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든 평가를 적절하거나 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실제로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독자의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 독자 간에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의미 교섭이 일어난다. 이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독자 개인의 평가는 토론, 논쟁, 공동 해석 등 다른 독자와의 의미 교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¹⁵⁾

요컨대,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중층적 소통을 지향하는 독자의 추론 행위이자 공동체 지향의 해석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의 선지식을 바탕으로 서술자와의 거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술자의 신빙성을 신뢰하거나 의심한다. 이러한 신뢰나 의심을 통해 서술자와 내포 작가 간 거리가 문제시된다. 독자는 자신의 신뢰나 의심을 확증하기 위해 텍스트의 표지를 탐색하며 이를 근거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신빙성 평가는 공동체의 지평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은 다른 독자와의 의미 교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이와 관련하여 펠란과 뉘닝의 논쟁을 참고할 만하다. 뉘닝(2005a : 92)은 부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내포 작가를 추론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해석이 있음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부스의 수사적 모델을 계승한 펠란(2005a : 48)은 뉘닝이 독자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텍스트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이나 독자와 작가, 독자와 독자가 이해를 공유하는 방식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소설 이해의 차원에서 독자가 텍스트를 근거로 추론을 통해 내포 작가를 구성한다는 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해석’을 전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빙성 평가(를 포함한 소설해석)의 논의는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해석의 타당성을 성취하는 지점, 즉 독자와 독자가 이해를 공유하는 방식을 밝히는 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를 성취하는 지점으로 해석 공동체의 의미 교섭에 주목한 것이다.

III. 소설 이해로서 신빙성 평가의 과정

이 장에서는 독자가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편 소설 《세월의 너울》과 이에 대한 해석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세월의 너울》은 리얼리즘 계열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김원일이 1986년에 발표한 소설로 집안의 장자이자 일인칭 서술자인 ‘나’가 ‘아버지의 기제삿날’을 맞이하여 ‘가문의 내력을 되짚어보는’ 한편, 그날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원일의 ‘리얼리스트’적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 소설(성민열, 1992 : 1452)로 우리의 근대 가족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논자들마다 상이하다. ‘부도덕한 과정을 통해 거둔 성공을 기원의 순결성으로 포장’(차혜영, 2004 : 157)했으며 ‘4·19세대의 문학이 보인 과거 지향의 가장 나쁜 형태’(성민열, 1992 : 1452)에 가깝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인간형을 창조하고’(하응백, 1996 : 334) ‘모든 것이 변하는 속에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남아 있음을 말해주는 감동적인 소설’(김성곤, 2006 : 299)로 ‘자기 세계의 객관화와 비판을 효과적으로 성취한 작품’(조희경, 2006 : 365)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해석적 편차의 이면에 서술자의 자질과 신빙성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와 관계된 서술자의 자질, 서술자와 내포작가의 거리와 관계된 서술자의 신빙성이 해석의 기점(cruces)¹⁷⁾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기준으로

16) 김윤식(1988 : 315)은 1980년대의 모체가부장적 면모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동하(1998 : 116) 또한 역사적 격동기 이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우리 현대사의 한 특징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17) ‘기점’은 소설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독자가 채워야 하는 틈 중 해석의 영역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틈을 의미한다. 기점은 해석 공동체에서 곧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요소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작품 전체의 해석 방향이

로 분석 대상인 해석 텍스트¹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 ¹⁹⁾	자질 평가	신빙성 판단	독자	해석 텍스트
가-1	긍정적	신빙성 있음	하응백	장자(長子)의 소설, 소설의 장자(長者)
가-2	긍정적	신빙성 있음	김성곤	소외에 상실의 시대에 읽은 화해와 포용의 문학
나-1	부정적	신빙성 있음	성민엽	윤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나-2	부정적	신빙성 있음	이동화	김원일 후기 중단편 연구
다-1	부정적	신빙성 없음	조희경	서술자의 '신빙성'을 통해 본 김원일의 작가 의식

이와 같은 평가의 다양함은 서술자 ‘나’의 자질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빙성 여부의 애매함이나 평가의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견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설 텍스트가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를 위한 교육 제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실제 이들 해석 텍스트에는 독자가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지를 탐색하면서 서술자의 신빙성과 내포 작가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의 단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²⁰⁾ 여기에서는 《세월의 너울》과 해석 텍스트들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신빙성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bbott(2008), 앞의 글, pp.181-186.

- 18) 이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비평문과 연구 논문을 해석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해석 텍스트는 양정실(2006 : 13-14)의 용어로, 문학 텍스트를 읽고 그로부터 추상적인 인식과 감수를 이끌어내어 표현한 글을 포괄한다. 해석 텍스트의 특징은 해석 논리를 찾아기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평문과 학술 논문의 장르적 특수성보다는 이들 글의 문면에서 확인하고 추론할 수 있는 해석 논리의 구성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 19) ‘가’군의 해석 텍스트는 서술자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간주한다. ‘나’군은 서술자의 자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간주한다. 반면 ‘다’군은 서술자의 자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판단한다. 기호화 방식은, 예를 들어 ‘나-1-3’는 ‘나’군의 첫 번째 해석 텍스트인 ‘윤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세 번째 인용이라는 뜻이다.
- 20) 채트먼(1990 : 131)에 따르면, “상이한 독자가 상이한 내포 작가를 구성한다고 해도, 과정 자체는 공통된 것이다.” 이상의 초점은 《세월의 너울》의 특정한 해석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신빙성 평가에 공통으로 내재한 절차적 지식을 고안하는 데 있다.

평가를 관통하는 신빙성 평가의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술자의 자질 평가를 통한 거리 설정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거리 설정에서 시작한다. 독자는 서술자와의 거리를 단서로 그의 신빙성을 신뢰하거나 의심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독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하면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인지의 여부를 확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단계의 관건은 독자가 서술자의 자질을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다. 우선 서술자의 자질은 그의 서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서술자는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려고 해도 어떤 표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스토리의 어떤 요소도 그의 서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리먼-케넌(1983 : 171~176)은 채트먼의 논의에 기대어 서술자의 자질이 드러나는 서술 영역을 ‘배경 묘사’, ‘작중 인물에 대한 지정’, ‘시간적 요약’, ‘작중 인물에 대한 평가’, ‘작중 인물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고’, ‘논평’으로 구분한 바 있다. 사건이나 사태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일반화하는 ‘논평’은 서술자의 자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며 최소 표지인 ‘배경 묘사’에서도 독자는 서술자의 지식이나 감정을 추측할 수 있다.

‘세월의 너울’에 대한 해석 텍스트는 주로 ‘작중 인물인 어머니에 대한 평가’, ‘서술자인 ‘나’의 논평’에 주목하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 [A] “시부모의 존귀함은 그 높기가 하늘과 같다. 모름지기 공경하고 공손히 잘 받들 뿐, 행여 자신의 현명함을 믿으려 해서는 아니 된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친정어머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외고 지냈다 한다. (중략) 그러므로 어머니야말로 할아버지가 일으켜 세운 가문을 튼튼한 그물이 되어 애두르고 지킨, 말 그대로 종부(宗婦)의 소임을 다한 여장부이다.(150-151)

[B] 어머니는 바깥으로 널리 퍼지는 밝은 빛이라기보다 가까이 있는 혈육에게만 캄캄한 밤의 등불과 같이 주위를 밝혀주는 희망과 안식의 빛이다.(중략) 어머니는 오래 전부터 나에게는 종교와 같은 절대적인 그 무엇이 되었다. 그 그들이 아니고서는 우리 집안은 물론 나라는 존재도 너울 쉼 바다에 떠도는 가랑잎이었으리라.(230-231)

[C] 조상을 숭모하여 하늘에 드리는 제사 역시 그 뒤를 이어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인간이 짐승과 달리 예(禮)를 생활의 바탕으로 삼았을 때 조상을 숭모하는 이치야말로 당연한 귀결이다.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여 받들어 기리고, 살아 있는 후손의 평안을 염원하는 이 예식이야말로 인간이 창출한 것 중에 심오한 뜻으로 말하자면 그 으뜸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180-181)

[A], [B]는 어머니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C]는 조상 숭배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일반화이다. 이들 영역이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주된 단서로 주목받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초점화 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작품의 일인칭 서술자이자 작중 인물인 ‘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말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보는 주체, 즉 인물 초점자(character-bound focalizer)의 역할을 맡고 있다.²¹⁾ 그리고 초점화의 많은 부분을 작중인물인 어머니에게 할애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독자는 인물 초점자인 ‘나’가 지닌 시각과 의지를 의식하게 되고 특히 주된 초점대상인 어

21) 초점화는 쥘레트(Gérard Genette)가 제안한 개념으로 서술에서 말하는 주체와 보는 주체를 구분하고 후자를 중심으로 서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초점화는 무초점화, 내적 초점화, 외적 초점화로 구분된다. 무초점화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경우이며 내적 초점화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경우이며 외적 초점화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경우이다.(Genette, Gérard.(1972),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옮김(1992), 서사담론, 교보문고, pp.177-182.) 발(Mieke Bal) 주레트의 초점화 이론을 비판적 수용하면서 초점자를 인물 초점자와 비인물 초점자(non-character-bound focalizer)로 나눈다. 인물 초점자는 초점자가 작중 인물인 경우로 주레트의 내적 초점화에 해당한다. 인물 초점자가 서술을 이끌 경우 독자는 해당 작중 인물의 시각과 의지에 따라 보게 되며 그 인물이 제시한 시각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Bal, Mieke.(1980), *Theorie van vertellen en verhalen*, 한용환, 강덕화 옮김(1999),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pp.189-192.)

머니를 주목한다.

이상과 같은 서술 영역을 근거로 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한다.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서술자의 자질은 거리의 축을 중심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거리는 하나 이상의 축을 따라 발생하는 서사적 소통에 포함된 두 행위자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의미한다. 이때 축은 행위자의 자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지적 능력의 축, 감정의 축, 윤리의 축으로 나뉜다.²²⁾ 이와 같은 축에 근거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을 지적 능력, 감정, 가치관으로 세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1-1] 아버지의 기제삿날 ‘나’는 혈육에게는 ‘깜깜한 밤의 등불과 같이 주위를 밝혀주는 희망과 안식의 빛’인 어머니의 그러한 고결한 삶을 흐뭇하게 회상하며 깊은 상념에 젖어든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중략) 도덕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이 주제는 어머니의 올곧은 삶과 연관되면서 사실적인 설득력을 획득한다. 요컨대 이 소설은 어머니로 표징되는 ‘아름다운 삶’을, 바람직한 삶의 유형을 창조한 것이다.(329-331)

[나-2-1] 김명식의 과도한 어머니 숭배는 역시 별난 것임에 틀림없다. 환갑이 다 된 사람이 아직도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의 자리에 머무른 채 스스로를 <어린이>라고 부를 정도라니! 그것은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 없음>을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의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어머니에 대해 과도한 미화를 행하는 심리와 연결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112)

인용한 대목은 위의 [A], [B]를 단서로 어머니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가-1-1]의 독자는 어머니의 삶을 ‘올곧은 삶’, ‘아

22) 여기에 시간적·공간적 축이 추가되는데, 이 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지식, 감정, 가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간접적 자질로 제외하였다. Phelan, James. (2005b), *Distance*, Herman, David., Jahn, Manfred., & Ryan, Marie-Laure.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New York : Routledge, p.119.

름다운 삶', '바람직한 삶'으로 규정한다. 이는 그녀의 삶을 '희망과 안식의 빛'으로 칭송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감정에 공감한 것으로 서술자와의 거리는 짧다. 반면 [나-2-1]의 독자는 다른 평가를 내린다. 그가 보기에 어머니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은 '과도한 숭배'이자 '과도한 미화'로 '별난 것'이다. 독자는 이러한 감정이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 없음"을 부정하려는 보상 심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그와 거리를 둔다.

서술자의 감정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독자가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지식을 적극적으로 평가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뉘닝(2005a : 98)에 따르면, 신빙성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적 경험과 픽진상', '심리적 정상성', '사회적·도덕적 규범'²³⁾에 대한 개인의 선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인용에서 두 독자는 '어머니에 대한 서술자의 존경'이라는 동일한 감정에 대해 '심리적 정상성'과 관련된 서로 다른 지식에 비춰 상이한 평가를 내린다. [가-1-1]의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감정이 심리적 정상성에 대한 자신의 선지식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감한다. 반면 [나-2-1]의 독자는 '별난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다. 심리적 정상성에 대한 독자의 지식 체계에 비춰볼 때 서술자의 감정은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에게 서술자의 감정은 '정당성에 대한 자신 없음', '보상 심리'일 뿐이다.

해석과 평가의 자료로서 독자의 선지식은 서술자의 가치관을 평가할 때 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23) '실제적 경험과 픽진상'은 서술자의 세계 인식과 서술이 '실제 세계를 얼마나 표상하고 또는 그 세계와 양립가능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서술자의 인간 행위와 세계에 대한 지식 정도, 또는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심리적 정상성은 '인격(personality)에 대한 적절한 심리학적 이론들 또는 심리적 일관성'으로 행위자의 감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적·도덕적 규범'은 공동체적 가치 기준으로 행위자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가-2-1] ‘나’는 이제야 비로소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으며 곧 저 세상으로 사라져갈 어머니가 대표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세월의 너울」은 세월의 풍속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직할 영원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남아 있음을 말해주는 감동적인 소설이다. 어머니로 표상되는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눈부심은 고유한 전통과 풍습이 급속도로 와해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숨 쉬고 있을 것이다.(299)

[나-1-1] 어머니, 그리고 그녀가 체현하고 있는 유교적 규범의 덕택이다.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 그들이 아니고서는 우리 집안은 물론 나라는 존재도 너울 센 바다에 떠도는 가랑이이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유교적 규범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교적 규범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우리를 펍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것이 봉건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통해 현재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1452)

인용한 대목은 서술자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가-2-1]의 독자는 서술자의 가치관에 동의한다. 서술자는 “어머니가 대표하는” ‘유교적 규범’을 “소중한 가치”로서 수용한다. 독자 또한 이 규범을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눈부심”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독자가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따르는 사회적 규범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서술자의 가치관이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적 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나-1-1]의 독자는 ‘유교적 규범’을 지향하는 서술자의 가치에 ‘펍 곤혹스러워’ 한다. 이유는 독자가 지향하는 사회적 규범과 서술자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해석 텍스트의 서두에 “과거 지향의 가장 부정적인 움직임은 그것이 봉건적 이데올로기로의 회귀라는 모습을 띠 때”(1446)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독자에게 서술자의 “유교적 규범에 대한 의미 부여”는 “봉건적인 것으로의 회귀”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요컨대,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자의 서술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후자는 해석의 전

제 조건²⁴⁾일 뿐만 아니라 해석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성찰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²⁵⁾에서 중요하다.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맹신하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과도하게 투사할 경우 서술자의 자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자질 평가가 소설 텍스트와의 대면 과정에서 진행되는 내적 질문과 응답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²⁶⁾하다.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동원한 자신의 지식을 성찰해야 하는 한편, 자신이 간과한 서술자의 자질은 없는지, 서술자의 특정한 자질을 과장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자신의 평가와 서술자의 서술을 상호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신빙성 표지의 탐색을 통한 서술자의 신빙성 판단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거리 설정은 서술자의 신빙성을 신뢰하거나 의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신뢰나 의심, 특히 후자에서 시작되기 때문

24) 리퍼르는 서사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즉 ‘행동에 대한 전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미메시스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행동의 특성은 행동의 구조적 특성, 행동의 상징적 특성, 행동의 시간적 특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삶을 형상화할 수도 줄거리를 재형상화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Ricoeur, Paul(1983), *Temps et Récit I :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 이경래 옮김(1999),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p.128-147.

25) 리퍼르는 “하나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은 한 주체의 자기 해석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그 주체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자기를 달리 이해하고, 또는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독자의 지식과 경험이 해석의 전체 조건이면서 또한 해석의 과정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Ricoeur, Paul(1986),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남기영 옮김(2002),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pp.181-184.

26) 따라서 독자의 선지식은 두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적 요인인 동시에 성찰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사한다면 자기-폐쇄적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양정실(2006),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p.102.)

이다. 독자가 서술자의 자질에 공감한다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서술을 신뢰하고자 한다.²⁷⁾ 반면 독자가 서술자의 자질에 곤혹스러워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의심할 것이다.

이때 독자는 내포 작가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이러한 신뢰와 의심을 검증해야 한다. 즉 서술자에 대해 자신이 설정한 거리가 내포 작가를 향한 거리인지 아니면 서사 전략으로서 내포 작가가 의도한 수사적 효과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자는 우선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내포 작가의 입장을 암시하는 단서를 텍스트에서 찾아야 한다. 서술자는 자신이 진실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을 가리키는 비신빙성의 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²⁸⁾

[D] “할머니, 예전에는 어디 여자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나요. 남자들 노리갯감이었고, 아들을 두어 대를 잇게 해야 겨우 한시름을 놓게 되고,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 일에 시달려야 했나요. 유학의 단점도 되겠는데, 그렇게 남자만 선호하는 풍습은 지금도 남았잖아요. 제가 무슨 여권 운동가는 아니지만, 참으로 예전 우리나라 여자들은 한평생을 고생으로 살다 마친 인생이었어요.”(141)

[E] 만약 그 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성세대로서 나라는 존

27) 예를 들어 [가-2]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자가 지닌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내포 작가의 대변자로 간주하고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2-2] 이 작품을 읽고 있노라면, 특히 제사 의식과 전통 풍습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세밀하고도 정치한 묘사에 감탄하게 된다.

28) 슈탄젤의 지적처럼 일인칭 서술자의 서술은 그에 대한 의심이 적절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Stanze, F. K.(1982), *Theorie des Erzählens.*, 김정신 옮김(1990), 소설의 이론, 문학과비평사, p.224.) 다시 말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명확한 근거, 즉 비신빙성의 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이다. 반면 의심이 적절하다는 명확한 근거, 비신빙성의 표지를 발견한다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깝더라도 그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이다. 이 경우 독자는 해석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서술자의 자질과 신빙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수정해야 한다.

채 역시 이 땅에서는 삶의 가치가 퇴색되고 만다. 그 애들의 눈에는 내가 이미 썩어버린, 정신개조가 불가능한 부르주아요 타락한 보수주의자로 보일 테니깐. 그렇게 취급당한다 해도 나는 발끈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치가도, 파란자본가도, 기회주의자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 애들이 추켜세우는 민중의 일원은 못 되지만 내 자신의 삶만큼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 애들도 그렇게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삶이 불의나 비도덕적이지 않다면 어느 계층으로부터든 그 삶의 뒤편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4-165)

[F] 두어 해 소금밭 일을 한 할아버지는 그 동안의 새경이 모이자, 그 돈으로 나귀 한 필을 사서 안성·양평의 내륙 지방에다 내다 파는 소금장수를 시작하였다. 한일강제합병을 앞두고 일제의 조선반도 점탈이 본격화되어 세상이 한창 어수선했을 때라 내륙 지방은 소금이 품귀 현상을 빚었다.(중략) 할아버지는 자신의 못 배운 한을 가슴에 늘 못으로 박아두고 장년의 나이에 이르고서도 서책을 가까이하며, 평생 일념을 사회적 신분의 상승에다 걸었음이 분명하였다. 할아버지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돈만 아는 장사꾼이었다.(중략) 나는 종로 사가에다 약국을 열었다. 신약국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기도 했지만, 전쟁 뒤 끝의 혼란기라 어느 집이든 전상자나 앓는 환자가 있게 마련이어서 약국이 잘 되었다. 잘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매출액이 당시로는 작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였다.(중략) 나는 그렇게 번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저축하였다. 운은 사일구 학생혁명이 날 때까지 계속되었다.(134-160)

‘세월의 너울’의 주요 인물은 일인칭 서술자인 ‘나’와 주요 초점 대상인 ‘어머니’이다. 하지만 사건의 배경이 기제사를 지내는 장자의 집인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등장한다. 이중 [D]는 서술자 ‘나’의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의 내훈을 듣고 난 후에 한 말이다.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종갓집의 중부감”으로 점찍은 후 자주 ‘유교적 규범’이 내재된 내훈을 가르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내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자며느리라는 위치 때문에 적극적인 거부감은 표시하지 못하지만 위의 인용에서처럼, ‘유학의 단점’인 ‘남존여비’의

부당함을 환기하며 어머니와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E]는 감옥에 갇힌 조카 건옥이의 주장에 대한 서술자 ‘나’의 반응이다. 학생 운동을 하다 투옥된 조카 건옥은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작은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주의’에 갇힌 기성세대를 비판한다. 건옥의 이러한 비판은 ‘유교적 규범’ 아래에 가족의 성공을 위해 매진한 자신의 삶을 ‘성실한 삶’으로 생각하는 서술자의 가치관과 대립한다.

둘째 며느리와 조카 건옥의 견해는 독자가 서술자의 가치를 순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먼 경우, 독자는 내포 작가의 가치가 서술자의 견해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아래의 인용처럼, 독자는 서술자의 가치와 대립하는 작중인물의 견해를 내포 작가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술자와 내포 작가의 거리는 멀어지고 독자는 서술자 ‘나’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의심을 확증하게 된다.²⁹⁾

[다-1-1] 이 소설에서 내포 작가의 의미를 대변하는 인물들은 수시로 서술자인 주인공과 초점대상인 어머니를 객관화하여 독자에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가)의 둘째 며느리는 내포 작가의 의미를 대변한다.(350-351)

이와 같이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신뢰와 의혹을 비신빙성의 표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비신빙성의 표지는 내포 작가가 자신의 가치를 독자와 은밀히 소통하기 위한 단서이다. 주로 ‘텍스트 내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술자와 작중 인물의 대립’과 ‘재현된 사건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대립’이 대표적이다(Nünning, 1997 : 96-97). 전자는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서술자의 가치와 대립하는 작중 인물의 견해를 내포 작가의 가치를 암시하거나 대변하는 것으로 상정하면서 비신빙성의 표지로

29) 여기에서 독자는 작중 인물인 둘째 며느리와 조카 건옥와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하면서 서술자와의 거리와 비교한다. 이처럼 독자는 서술자와 작중인물 간의 거리, 이들과 자신과의 거리를 가늠하고 설정하면서 내포 작가를 추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삼을 수 있다. 또한 후자는 ‘서술자의 사건 재현과 서술자가 제공하는 사건의 설명, 평가 그리고 해석 사이의 대립’으로 서술자의 자질이 지닌 문제점을 스스로 폭로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내포 작가가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다. 독자는 이들 대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포 작가 ‘어떤 가치 기준을 보류하고 어떤 가치 기준을 정말로 작용하고 있는지’(Booth, 1961 : 198)를 파악할 수 있다.

[다-1-2] 전후의 혼란기를 이용한 돈벌이 과정을 자랑하듯 늘어놓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천민자본주의의 소시민성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거기에는 자의식이 끼어들 틈이 없다.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낼수록 내포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는 넓어지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353)

위의 해석 텍스트에서 독자는 [E]와 [F]를 근거로 서술자의 서술에 대한 ‘재현된 사건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대립’을 확인한다. 역사의 고비마다 서술자와 그의 선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재현한 [F]와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E]의 논평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서술자가 언급한 과거, 즉 ‘한일강제합병’, ‘전쟁 뒤 끝’, ‘사일구 학생혁명’은 당시가 ‘자신의 삶만을 성실하게 사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시대임을 환기한다. 독자는 이와 같은 대립을 비신빙성의 표지로 삼으면서 서술자의 이면에서 내포 작가가 소통하고자 원하는 것, 즉 “천민자본주의의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재구한다.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텍스트 내 대립적 요소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독자가 자신이 발견한 ‘서술자와 작중 인물의 대립’과 ‘재현된 사건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대립’을 내포 작가의 가치를 암시하는 비신빙성의 표지로서 의미 있게 수용할 경우, 비로소 해당 서술자를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판단할 수 있다.³⁰⁾

30)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 텍스트에서는 간과하거나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막내아들 건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욱은 사실상 소설의 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건욱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뒤늦게 기사에 등장하는데, 등장 이전에는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고 등장 이후에는 가족사와 관련된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또한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이 하나의 서사 전략으로서 독자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극적 어려움의 장치로서 독자가 내포 작가와 공모하는 형태로 서술자의 모순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거나 서술자의 우행을 즐길 수 있으며 냉철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아래의 인용에서 독자는 최종적으로 서술자를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4·19세대를 객관화하여 비판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1-3] 이 작품의 묘미는 서술자가 내포 작가와의 거리를 넓혀가면서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포착하는 데 있다. 김원일은 이러한 전략으로 86년의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에게 부과되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기 세대인 ‘4·19세대 전체의 장자의 의식’에 부과된 자의식과 책임감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365)

한편 독자는 소설 텍스트에서 비신빙성의 표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발견하더라도 의미 있는 것으로 신빙성 평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판단한다. ‘세월의 너

는 점에서 독자들의 긴장과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특히 그가 전하는 ‘놀라운 소식’이 중요하다. 그는 드라마 작가로서 자료 취재 도중 증조할아버지, 즉 서술자 ‘나’의 할아버지가 여중 출신인 자신의 어머니의 호적을 ‘문벌을 자랑하는 집안’으로 고쳤으며 이를 할머니, 즉 서술자 ‘나’의 어머니가 재차 꾸며내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한다.(221-228) 이는 서술자 ‘나’가 자랑스럽게 회고한 가문의 역사가 실재했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독자에게 확인시키면서 동시에 서술자와의 충돌, 즉 “그 이야기의 진위가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가?”(227)라고 묻는 서술자와 “저는 오직 진실을 확인했다는 애깁니다.”(228)라고 대답하는 건욱의 대립을 초래한다. 이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의 대립’과 ‘재현된 사건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대립’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점으로, 이런 점에서 건욱의 ‘놀라운 소식’은 서술자 ‘나’에 대한 내포 작가의 거리 두기와 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술자 ‘나’의 신빙성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점차 내포 작가/독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다가 절정(climax)에서 가장 멀어지는 소격 비신빙성(stranging unreliability)으로 볼 수 있다. 비신빙성의 양상 중 소격 비신빙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helan, James.(2007), *Estranging Unreliability, Bonding Unreliability, Narrative* 15,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Narrative Literature*, pp.223-224.

울’에 대한 해석텍스트 중 [가]군과 [나]군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운 [가]의 해석 텍스트뿐만 아니라 거리가 먼 [나]의 해석 텍스트도 비신빙성의 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³¹⁾ 특히 [나]의 해석 텍스트가 비신빙성의 표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독자가 서술자의 감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비신빙성의 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받아들이는 사례이다. 그에게 신빙성 없는 대상은 내포 작가 그 자체가 된다.

물론 이들 해석텍스트에서 비신빙성의 표지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1-2] 유평적 규범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우리를 꽤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것이 봉건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통해 현재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불분명하지만, 이 작품의 서술이 풍자나 아이러니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로 그러한 의미 부여에 동의하는 듯이 여겨진다.

31) 따라서 아래의 [가-1-2], [가-2-2]처럼, 서술자의 가치를 의인화된 소설, 즉 내포 작가의 가치와 동일시한다. 반면 [나-2-2]는 실제 작가인 김원일의 개인사를 근거로 서술자 ‘나’(김명식)를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전기적 자료 자체가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빙성 평가의 적절한 근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

[가-1-2] 요컨대 이 소설은 어머니로 표징되는 ‘아름다운 삶’을, ‘바람직한 삶의 유형’을 창조한 것이다.(331)

[가-2-3] 「세월의 너울」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직할 영원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남아 있음을 말해주는 감동적인 소설이다.(299)

[나-2-2] 김명식은 역시 중요한 점에서 김원일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장남 — 그것도 그냥 장남이 아니라 투철한 장자의식을 가진 장남 — 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민중의 일원은 못되지만 내 자식의 삶만큼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이 그러하다.(115)

인용된 부분에서는 독자가 신빙성의 표지를 탐색하면서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독자는 서술자와의 거리감(“곤혹”)을 근거로 그의 신빙성에 의혹(“작가의 태도는 불분명하지만”)을 가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비신빙성의 표지를 탐색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해(“이 작품의 서술이 풍자나 아이러니와는 거리가 멀다”) 그를 신빙성 있는 서술로 판단(“대체로 그러한 의미 부여에 동의하는 듯이 여겨진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독자는 서술자의 감정이나 가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에게 공감하더라도 비신빙성의 표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독자가 비신빙성의 표지를 다시 탐색하는 과정은 텍스트를 거듭 읽으면서 자신의 평가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신빙성 평가를 명료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예를 들어 독자가 서술자를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지만 다시 읽기를 통해 의미 있는 비신빙성의 표지를 찾을 경우 자신의 최초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체 해석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서술자를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판단한 독자도 자신이 찾은 텍스트 내 대립이 비신빙성의 표지로 보기 어렵거나 의미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서술자의 신빙성을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비신빙성 표지의 탐색은 독자가 자신의 신빙성 평가에 책임을 지고 해석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2) 독자는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비신빙성의 표지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이들 표지를 모두 그리고 공평하게 읽어내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특정 비신빙성의 표지를 더 읽거나(overread) 덜 읽기(underread)마련이다. 모든 해석은 더읽기와 덜읽기의 결과인데, 텍스트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단편적이며 심지어 자기모순이어도 독자가 이를 해석하고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의 의미적 위계화를 통해 텍스트에 통합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독자는 텍스트와 자신의 읽기 경험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덜읽기와 더읽기의 자의성을 축소할 수 있다. 해석의 통합성과 덜읽기, 더읽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Abbott, 2008 : 169-177)

3. 의미 교섭을 통한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 확보

앞서 지적했듯이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독자 개인의 추론 행위로 규정할 때 해결해야 할 난점 중 하나는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있다. 특정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는 해석 현상이다. 채트먼(1990 : 131)의 지적처럼, ‘내포되고 추론된 창안의 구성 개념으로서 내포 작가는 상이한 독자에 의해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신빙성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수 있다. 이 점은 《세월의 너울》의 해석텍스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비신빙성의 표지를 더 읽거나 덜 읽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신빙성 평가를 도출한다. 한편으로는 비신빙성의 표지를 근거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수사적 효과와 내포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비신빙성의 표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 있는 서술자로 간주하면서 그의 가치를 주체화하거나 내포 작가와 함께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개별 독자의 모든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유효한 것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신빙성 평가에 대한 상대주의는 개별 독자의 해석에 제한을 가하도록 작가가 설계한 텍스트 요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설득을 통해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독자의 노력까지 차단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독자가 서술자의 신빙성이라는 내포 작가의 설득 전략을 통해 가해지는 세계관에 대한 응답이다.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 비신빙성 표지 등 텍스트 요인을 통해 가해지는 세계관의 제약적 위력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다.³³⁾ 이는 독자가 자신과 다른 평가가

33) 리퍼르에 따르면 허구는 역사와 달리 문서에 따른 증거라는 외적인 제약이 없어 상상의 변주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는 내적인 필연성, 즉 ‘세계관이 지니는 제약적 위력’을 확보할 때만 소통 가능하다. 허구 서사의 가치 체계는 그 자체로 연표 내적 힘, 즉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확신의 힘을 지니고 있어야 읽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허구’ 서사 읽기의 관건은 독자가 내포 작가의 설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신빙성 평가가 다른 독자의 그것보다 내포 작가의 의도에 보다 부합하는 것임을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설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자는 비신빙성의 표지를 근거로 신빙성 평가의 적절성을 논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가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지점까지 다른 독자를 설득해야 한다.³⁴⁾

[다-1-4] 이러한 어머니를 종교적 대상처럼 숭배하는 서술자는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변모한다. 자기 혈육에게만 빛을 비춰주는 어머니의 생애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서술자인 이러한 대화가 반복될수록 독자는 ‘나’와 어머니로부터 등을 돌린다.¹⁹⁾ 작가는 내포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독자의 시선이 동정에서 비판으로 변화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나’의 서술을 작가의 진실과 동일시하여 “어머니로 표징되는 아름다운 삶 혹은 바람직한 삶의 유형을 창조한 것”²⁰⁾이라는 평가는 작가의 의도를 왜곡한 결과이다.

19) “김명식의 어머니가 대단한 여성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에게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손주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귀가 아프도록 유교적인 부덕을 설교해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아는 그 터무니 없는 권위의식이 우리를 질리게 한다.” 이동하, 앞의 책, 111면.

20) 하웅백, 앞의 책, 343면. (352)

인용한 해석 텍스트에서 독자는 인용과 각주의 형태로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독자와 의미 교섭을 하고 있다.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이 진행될수록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독자([나-2])의 해석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신빙성 평가가 보편성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서술자의 신빙성을 자신과 다르게 평가한 해석([가-1])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간과하고

독 전략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는가에 있다. Ricoeur, Paul(1985), 앞의 책, pp.346-347.

34) 설득으로서 비평 행위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 Fish, Stanley.(1978), *Demonstration versus Persuasion : Two Models of Critical Activity*, Hernadi, Paul.(Ed.), *What is Criticism*, 최상규 옮김(1998), 예림기획, pp.55-56.

있는 비신빙성의 표지가 사실은 의미 있는 것임을 논증하면서 자신의 평가가 보다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한다.³⁵⁾ 이러한 대화적 의미 교섭의 양상은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지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지평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한편 대화적 의미 교섭은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적절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³⁶⁾ 앞 절에서 신빙성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설령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깝더라도 비신빙성의 표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탐색은 다른 독자와 의미 교섭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서술자의 신빙성이 기점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제안되고 충돌할 때 독자는 자신의 신빙성 평가를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비신빙성의 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신빙성 평가를 심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신빙성 평가의 심화와 조정은 다른 독자의 해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은 공감했지만 다른 독자는 분노하며 거리를 둔 서술자의 감정과 자질이 있다면 그 독자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를 경청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자신과 서술자의 거리를 재

35) 한편 [다-1]를 제외하고는 대화적 의미 교섭이 문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적었다. 이는 이들 해석 텍스트가 공적 글쓰기의 산물로서 긴 시간을 두고 의미 교섭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비평가의 해석 텍스트는 확정된 관점과 논리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독자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 다른 독자와 의미 교섭하면서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논리를 마련했을지라도 그 모두를 텍스트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36) 김정우에 따르면 해석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성(relevance)과 중요성(importance)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성은 개별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구체적 전체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어떤 해석이 대상 텍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요성은 해석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인데, 관련성을 확보한 해석 중 창의성이나 설명 가능성 등이 높다는 이유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우는 적절한 해석을 관련성을 확보한 것으로 타당한 해석을 관련성과 함께 중요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정우(2004),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pp.130-132.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은 중요한 근거로 삼았지만 다른 독자는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은 텍스트 내 대립이 있다면 이러한 텍스트 요소가 비신빙성의 적절한 표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이처럼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지평을 넘어 공동체의 지평에서 합의될 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독자는 다른 독자와 의미 교섭을 하면서 자신의 신빙성 평가 과정을 성찰하고 다른 독자의 평가 방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신빙성 평가를 심화하는 동시에 타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에 기여할 수 있다.

IV. 소설 이해 교육에서 신빙성 평가의 가치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소설 이해 교육의 내용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소설 이해로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서사적 소통 능력의 신장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시점과 연계지어 제재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주로 제한된 지식을 지닌 어린 또는 어수룩한 서술자가 등장하는 소설 텍스트를 통해 시점의 유형과 특징, 미적 효과 등을 주로 가르쳤다.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누가 어떤 관점과 위치에서 서술하는가’라는 문제를 세심하게 탐색하는 데 일조한다³⁷⁾는 점을 환기하면 이와 같은 접근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는 시점의 이해나 분석을 넘어 서사적 소통 능력을 견인하는 교육 내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리피르(1985 : 332-333)의 지적한 것처럼, 소설 이해의 차원에서 작품의 의미 작용이 생겨

37) 이수정(1996), 앞의 글, p.192.

나는 서사적 소통의 기본 축은 실제 독자와 내포 작가이다. 실제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서술을 따라가는 동시에 이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발언자로서 내포 작가의 가치와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특히 서술자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독자는 서술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자질과 비신빙성의 표지 등을 근거로 내포 작가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는 데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론과 중층적 소통은 허구 서사라는 장르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읽기로서 서사적 소통 능력의 신장을 견인할 수 있다.

둘째, 가치 탐구 경험의 활성화이다. 소설은 독자에게 특정한 선함과 옳음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선한지에 대한 가치 기준의 탐구³⁸⁾를 요청하는 장르이다. 즉 소설 이해는 내포 작가가 서사 전략을 통해 가하는 가치관의 위력에 대한 독자의 대응으로 이때 독자는 서술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술 방식을 근거로 내포 작가가 어떤 가치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는 심미성과 윤리성의 점점에 위치한 해석 행위로 평가 받아 왔다(권택영, 2008 : 13-14).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야기 요소에 해당하는 작중 인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서술자의 거리, 내포 작가의 거리 조정 등 담론 요소를 복합적으로 따져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내포 작가가 설득하려는 가치를 추론한다. 특히 서술자의 가치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텍스트를 대할수록 독자는 응답성의 요청을 강하게 의식하며 보다 치열하게 가치 탐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가치 탐구 경험은 소설 텍스트가 제안하는 옳고 선함의 가치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인 동시에 등장인물, 서술자, 내포작가와 독자 자신의 거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미학과 윤리학이 통합된 서사 교육의 성격을 띤다.

38) 이와 같은 의미에서 황혜진은 소설을 ‘도덕적 언어’로 규정한다. 여기서 ‘도덕적’은 훌륭한 가치의 소유를 의미하기보다는 가치 감화 작용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독자가 특정한 가치를 바람직하게 여기게 함을 의미한다. 황혜진(2006),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p.181.

셋째, 공진(共進, coevolution)의 실현이다. 소설 이해는 내포 작가를 향한 개별 독자의 소통이라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독자 개인은 중층적 소통을 지향하며 각각의 내포 작가를 추론하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 감각”³⁹⁾에 의존하여 보편화되어야 한다. 즉 각각의 독자가 추론한 내포 작가의 가치와 의도는 서로 견주보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며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거나 기여한다. 이를 문학 독서의 원리로서 공진⁴⁰⁾이라 한다.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독자 개인의 평가는 의미 교섭을 통해 타당성의 확보나 기여로 나가야 함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공진의 과정이다.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는 거듭 읽기와 체험 읽기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과 내포 작가의 표지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내는 한편 다른 독자의 신빙성 평가를 경청하고 참고한다. 특히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텍스트의 경우,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면서 그의 신빙성 평가를 비판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신빙성 평가를 조정하고 심화할 수 있고 타당성을 설득하며 공동체의 합의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문학 교실에서는 신빙성 평가를 둘러싼 의미 교섭이 학습자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의미 교섭이 동등한 해석 주체로서 논쟁적 성격이 강하다면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의미 교섭은 교사의 해석과 판단,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수적 성격이 강하다(최미숙, 2005 : 68-70).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두 층위 모두 토론, 논쟁, 공동 해석

39)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칸트의 공통 감각을 설득적 행위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이로 하여금—“이것은 아름답다.”라든가 “이것은 오류이다.”라는—자신의 판단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중략)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동의를 “호소(woo)”하거나 “간청(court)”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적 행위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공동체 감각”에 호소한다.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을 내릴 때 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행한다.” Arendt, Hannah.(198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김선욱 옮김(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푸른숲, p.139-140.

40) 공진화는 문학 독서의 방법 중 하나로 문학 독서를 수행하는 복수의 참여자들이 상호 개입하고 동기화함으로써 문학 체험을 조정하고 문화적 합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최지현(2007), “문학 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 제17집, 한국독서학회, pp.74-76.

등 참여자 간 개입과 동기화를 통해 신빙성 평가를 조정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공진을 실현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소설 이해의 측면에서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신빙성 평가의 구도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는 한편, 김원일의 《세월의 너울》 및 이에 대한 해석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서술자의 신빙성, 특히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미적 효과를 의도한 수사적 전략으로 근대 소설의 발전과 함께 점차 폭넓게 활용되었다.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는 읽기 전부터 자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는 추론과 중층적 소통을 통해 파악하고 평가하며 다른 독자와의 의미 교섭을 통해 그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빙성 평가는 서사적 소통 구도를 역동적으로 만든다. 특히 서술자의 자질과 신빙성 여부가 해석의 기점이 되어 다양한 평가를 유도하는 소설 텍스트는 독자에게 능동적인 의미 구성과 적극적인 의미 교섭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를 응답의 측면에서 조명한 다음의 주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나는 부스가 현대 문학이 관심을 쏟고 있는 모호한 서술자에 대해서 보인 엄격한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첩하게 중간에 끼어들어 직접 독자를 이끄는 18세기의 소설가가 그렇듯이, 전적으로 신빙성 있는 서술자는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과 그들의 모험에 대한 그 어떤 정서적 거리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아이러니컬한 서술자로 인해 길을 잃은 ‘마의 산’의 독자처럼, 방향을 상실한 독자는 더 많이 반성하게 되지 않겠는가? (중략) 현대 문학이 위협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대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비평에 걸맞은 유일한 대답 — 부스를 가장 훌륭한 대표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은 그러한 유독성의 문학이 새로운 유형의 독자, 즉 응답하는 독자를 요구한다는 것이다.⁴¹⁾

독자의 이러한 응답은 무엇보다 책임(responsibility)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빙성 평가의 어려움은 가치 체계의 복잡함에서 기인하거나 텍스트의 본질에 따른 소설 이해의 숙명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소설 이해를 독자의 자유로운 유희나 정체성 테마의 변주로만 볼 수는 없다. 소설 이해란 독자가 추론된 작가를 타자로서 대면하는 것이며 경청의 자세로 그 가치를 추론하고 응답의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청과 책임이 선행할 때 독자는 자기 동일한 전유가 아닌 타자를 통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비판과 해체적 전복까지 시도할 수 있다.

결국 소설 이해는 서술자에 대해 독자의 반응(reader-response) 형성과 그 다양성에 대한 허용을 넘어서 내포 작가의 가치를 경청하고 응답의 책임을 다하는 읽기, 즉 독자 책임 비평(reader-responsibility criticism)으로 심화해야 한다.⁴²⁾ 특히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는 이러한 읽기를 강하게 요청한다는 점에서 소설 이해 교육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1) 리퍼트(1985), 앞의 글, p.316. 한편 부스(1961 : 516)는 신빙성 평가의 다양성이 초래할 혼란을 경고하면서 “작가는 최대한으로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명백히 밝힐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는 내포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한 부스의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택영은 ‘롤리타’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서술의 모호함이 지닌 ‘민주적 성곽’과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윤리적 공간’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술의 모호함, 신빙성의 애매함 등은 독자를 깨어 있게 만들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잘 짜인 난해성’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주적 서술이다.(권택영(2008), “내포 저자 논쟁과 나 보코프의 『롤리타』”, 『미국소설』 제15집, 미국소설학회, p.20.)

42) 독자 책임 비평은 더글라스 앳킨G. Douglas Atkins(1983)의 용어로 여기에서는 독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반응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까지 강조한 용어이다. 독자 반응 비평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에 대한 개관, 이 과정에서 독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Freund, Elizabeth(1987). *The Return of the Reader*, 신명아 옮김(2005),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pp.249-257.

* 본 논문은 2011. 10. 28.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자료》

* 소설 텍스트

김원일(1996), 《세월의 너울》, 『세월의 너울』, 솔.

* 해석 텍스트

김성근(2006), “소외에 상실의 시대에 읽은 화해와 포용의 문학”, 『글로벌 시대의 문학』, 민음사, pp.284~299.

성민엽(1992), “윤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문학과 사회』 겨울호, 문학과지성사, pp.1445~1455.

이동화(1998), “김원일 후기 중단편 연구”, 『전농어문연구』 제10집, 서울시립대학교, pp.107~140.

조희경(2006), “서술자의 ‘신빙성’을 통해 본 김원일의 작가의식”, 『우리문학연구』 제20집, 우리문학회, pp.345-370.

하응백(1996), “장자(長子)의 소설, 소설의 장자(長者)”, 김원일, 『세월의 너울』, 솔, pp.313-334.

《참고논저》

권택영(2008), “내포 저자 논쟁과 나보코프의 『롤리타』”, 『미국소설』 제15집, 미국소설학회, pp.5~26.

김윤식(1988), “모계가부장제론”, 『오늘의 문학과 비평』, 문예출판사, p.282~316.

김동환(2009), “소설교육에서의 “시점”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제30권, 한국문학교육학회, pp.393~422.

김정우(2004),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양정실(2006),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이수정(1996), ““믿을 수 없는’ 일인칭 서술”, 김종구 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pp.170-192.

차혜영(2004), “성장 소설과 발전 이데올로기”,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체』, 깊은샘, p.129~161.

최병우(2003),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pp.107~128.

최미숙(2005), “현대시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 제14호, 한국시학회, pp.51~74.

- 최인자(2011),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제25집, 한국독서학회, pp.107~131.
- 최지현(2007), “문학 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 제17집, 한국독서학회, pp.63-82.
- 황혜진(2006),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Abbott, H. Porter(2008),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옮김(2010),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 Ansgar F. Nünning(1997), But why “will” you say that I am mad?, *Arbeiten aus Anglistik und Amerikanistik* 22, pp.83~105.
- Ansgar F. Nünning(2005a), Reconceptualizing Unreliable Narration : Synthesizing Cognitive and Rhetorical Approached, Phelan, James.&Peter J. Rabinowitz.(Eds),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Blackwell Pub, pp.89~107.
- Ansgar F. Nünning(2005b), Reliability, Herman, David., Jahn, Manfred.,&Ryan, Marie-Laure.(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New York : Routledge, p.495-497.
- Arendt, Hannah.(198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김선옥 옮김(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푸른숲.
- Bal, Mieke.(1980), *Theorie van vertellen en verhalen*, 한용환, 강덕화 옮김(1999),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 Booth, Wayne C.(1961), *The Rhetoric of Fiction*. 최상규(1999) 옮김,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 Chatman, Seymour Benjamin(1978),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옮김(2003),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사.
- Chatman, Seymour Benjamin(1990),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강덕화 옮김(2001),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 Fish, Stanley.(1978), *Demonstration versus Persuasion : Two Models of Critical Activity*, Hernadi, Paul.(Ed.), What is Criticism, 최상규 옮김(1998), 예림기획, pp.55~61.
- Freund, Elizabeth(1987), *The Return of the Reader*, 신명아 옮김(2005),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 Genette, Gérard.(1972),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옮김(1992), 『서사 담론』, 교보문고.
- Olson, G.(2003), Reconsidering Unreliability, *Narrative* 11,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Narrative Literature, pp.93-109.
- Peter J. Rabinowitz&Michael W. Smith(1998), *Authorizing Readers*, Teachers College Press.
- Phelan, James.(2005a), *Living to Tell about It*, Ithaca ;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 Phelan, James.(2005b), Distance, Herman, David., Jahn, Manfred & Ryan, Marie-Laure.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New York : Routledge, p.119.
- Phelan, James.(2007), Rhetoric/Ethics, Herman, David.(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03~215.
- Phelan, James.(2007), Estranging Unreliability, Bonding Unreliability, *Narrative* 15,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Narrative Literature, pp.222-238.
- Riggan, W.(1981), *Picaros, Madmen, Naifs, and Clowns :The unreliable First-person Narrator*, Universitu of Oklahoma Press.
- Ricoeur, Paul.(1983), *Temps et Récit I :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 이경래 옮김(1999),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 Ricoeur, Paul.(1985), *Temps et Récit III : Le Temps Raconté*, 김한식 옮김(2004), 『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성사.
- Ricoeur, Paul.(1986),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 · 남기영 옮김(2002),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 Rimmon-Kenan, Shlomith.(1983), *Narrative fiction*, 최상규 옮김(1999),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 Stanzel, F. K.(1982), *Theorie des Erzählens*, 김정신 옮김(1990), 『소설의 이론』, 문학과비평사.
- Yacobi, T.(1981), Fictional Reliability as a Communicative Problem, *Poetics Today* 2, pp.113~126.
- Zerweck, B.(2001), Historicizing Unreliable Narration, *Style* 35, pp.151~178.

<초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정진석

이 연구는 그간 내포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로 양분되어 논의된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소설 이해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설《세월의 너울》과 이에 대한 해석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신빙성 평가는 첫째, 중층적 소통. 둘째, 독자의 해석 행위로서 추론의 과정, 셋째, 해석 공동체의 의미 교섭이라는 구도를 지닌다.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신빙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됨을 밝혔다. 첫째, 독자는 서술자의 자질 평가를 통해 서술자와 자신의 거리를 설정하고, 둘째, 비신빙성 표지를 탐색하면서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며, 셋째, 의미 교섭을 통해 자신이 내린 신빙성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은 소설 교육에서 신빙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제적, 방법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앞에서 밝힌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을 근거로 시점의 학습으로 제한된 신빙성 평가의 교육적 가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학습자는 신빙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첫째, 서사적 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고, 둘째, 가치 탐구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셋째, 공진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신빙성 평가의 구도와 과정은 독자의 반응 형성과 그 다양성을 긍정하는 독자 반응 비평의 차원을 넘어 내포 작가의 가치를 경청하면서 응답의 책임을 다하는 읽기, 즉 독자 책임 비평의 한 범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핵심어】 소설 이해,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중층적 소통, 추론의 과정, 해석 공동체의 의미 교섭, 가치 탐구, 세월의 너울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n the Reliability of Narrator
as Understanding Novel

Jeong, Jin-seok

This essay aims to examine the judgement on the reliability of narrator has been discussed as a distance between the implied author and the narrator of as distance between the narrator and the actual reader and propose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judgement on the reliability. To achieve this, this essay analyses «The Wave of Time» and it's interpretive texts. The structure of the judgement on the reliability is as in the following ; First, the multiple communication, second, the process of inference as a reader's interpretation, third, the negotiation of meaning in the interpretive community. Under this structure, this essay shows the process of the judgement on the reliability as follows. First, Setting up a distance between reader and narrator by an evaluation on qualifications of a narrator. Second, the judgement on the reliability of a narrator by investigating indicators in relation to unreliability. Third, Ensuring validity by the negotiation of meaning. The foregoing discussion can be used as propositional knowledges and procedural knowledges to judge the reliability of narrator. Finally this essay tried to expand the values of the evaluation on the reliability of narrator that has been restricted just for learning the point of view. To sum up, the evaluation on reliability can help students to, first, develop their ability for narrative communication, second, build up value inquiry experience, and third, achieve coevolution.

【Key words】 understanding novel, evaluation on the reliability of narrator, multiple narrative communication, process of inference, negotiation of meaning in the interpretive community, value inquiry, The Wave of Time